

『黃帝內經』의 經絡學說에 대한 研究

I. 緒 論	4
II. 本 論	4
1. 十二經絡	5
1) 經絡의 定義	5
2) 名稱 및 特性	6
3) 經絡의 分布	6
4) 經絡氣運의 運行順序	6
5) 十二經脈의 循行 및 病證	7
6) 十二經脈의 機能	8
7) 標本	9
8) 氣街	10
9) 十五絡脈	11
2. 奇經八脈	12
3. 腧穴	16
1) 十二原穴	17
2) 五輸穴	18
3) 下合穴	19
III. 結 論	19
參 考 文 獻	20

『黃帝內經』의 經絡學說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金容辰

I. 緒論

韓醫學의 理論體系는 陰陽五行學說을 基礎로 하여, 臟象學說과 經絡學說과 本草學說이 調和를 이루어 형성되었고, 이러한 理論體系를 바탕으로 韓醫學의 基本理論에 대한 研究와 臨床에서 활용하여 韓醫學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學說들은 모두가 수많은 經驗과 研究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형성되었고, 지금에도 많은 研究가 되어 現代理論과 接木을 시키려는 努力들이 많이 되고 있다.

이같이 韓醫學의 基本理論을 現代에 맞게 發展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그 理論의 歷史적인 發展過程을 알고, 더욱 새로운 理論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經絡學說에 대하여서는 『黃帝內經』(이하 內經이라고 한다.)에서 거의 완벽하게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러므로 內經에서의 經絡學說에 대한 연구를 하면 經絡學說이 形成되는 初期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思料되어 內經에서의 經絡學說에 대하여 研究하여 보고자 한다.

本 研究는 內經에서 經絡學說과 관련된 文章들

을 拔萃하고 考察하는 方式으로 進行하고자 하는데 十二經絡部分은 대체로 內經時代의 것이나 現代의 것이 類似한 部分이 많이 나타나므로 簡略하게 다루고, 奇經八脈에 대한 部分은 많은 現代의 것과 많은 差異點이 나타나므로 內經에서의 奇經八脈에 대한 部分을 모두 다루고, 그리고 腧穴에 관한 部分은 內經에서 基本的인 것만을 言及하였으므로 簡略하게 考察하고자 한다.

II. 本 論

內經에서의 經絡系統으로는 十二經絡과 十二經別과 十二經筋과 十二皮部가 있으나, 十二經絡을 除外한 다른 部分들은 現在에 使用되고 있는 理論들이 內經에서의 理論보다 發展된 것이 거의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省略하기로 하고, 十二經絡에 대한 內容들도 現在에 많이 使用되고 있으며 內容의 差異가 거의 없는 部分에 대하여서는 簡略하게 言及하고, 現在의 經絡學說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지만 內經에서 言及된 內容들에 대하여 考察하기로 하겠다.

※ 이 논문은 1998년도 대전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1. 十二經絡

1) 經絡의 定義¹⁾

經絡學說은 韓醫學基本理論의 하나로 臟腑學說과 같이 人體의 生理病理變化 및 相互關係를 研究하는 學說이다. 經絡은 人體內 氣血運行的 通路로서, '經'은 徑路의 意義가 있고, 縱行의 大幹線을 말하고, '絡'은 羅網의 意義가 있으며 經의 分支이고 橫行의 小路線이고, 羅網經絡과 같고 全身에 퍼져있는 것이다. 이 經絡은 人體의 表裏上下를 溝通하고 臟腑器官을 連繫하는 獨特한 系統인 것이다²⁾.

內經에서는 이러한 經絡에 대하여 많은 部分에서 言及하고 있는데, 그 內容을 살펴보면 十二經絡과 關聯된 部分은 現在 使用되고 있는 經絡學說과 類似하므로 十二經絡과 關聯된 部分은 簡略하게 論述하기로 하겠다.

內經에서 經絡의 概念에 該當되는 文章을 모으면 아래와 같다.

『靈樞經脈』 “經脈者는 所以能決死生하고 處百病하고 調虛實하니 不可不通也라 …… 經脈十二者는 伏行分肉之間하야 深而不見하고 其常見者는 足太陰過於內踝之上이니 無所隱故也르세오 諸脈之浮而常見者는 皆絡脈也라 六經絡에 手陽明少陽之大絡은 起於五

指間하야 上合肘中이라 …… 雷公曰 何以知經脈之與絡脈異也이니잇가 黃帝曰 經脈者는 常不可見也니 其虛實也는 以氣口知之니 脈之見者는 皆絡脈也라 雷公曰 細子 無以明其然也하노이다 黃帝曰 諸絡脈은 皆不能經大節之間하고 必行絕道而出入하야 復合於皮中하니 其會皆見於外라”

『靈樞經別』 “夫十二經脈者 1 人之所以生이며 病之所以成이며 人之所以治이며 病之所以起오 學之所始며 工之所止也오 蠱之所易며 上之所難也니”

『靈樞海論』 “夫十二經脈者는 內屬於府藏하고 外絡於肢節하니”

『靈樞本藏』 “經脈者는 所以行血氣而營陰陽하고 濡筋骨하고 利關節者也라”

『靈樞經水』 “黃帝問於岐伯曰 經脈十二者는 外合於十二經水 而內屬於五藏六府라 夫十二經水者는 其有大小深淺廣狹近遠各不同하고 五藏六府之高下小大와 受穀之多少 亦不等하니 相應奈何잇가 夫經水者는 受水而行之하고 五藏者는 合神氣魂魄而藏之하고 六府者는 受穀而行之 受氣而揚之하고 經脈者는 受血而營之하니 合而以治는 奈何잇가 刺之深淺과 灸之壯數를 可得聞乎잇가”

『靈樞脈度』 “經脈爲裏오 支而橫者爲絡이오 絡之別者爲孫絡이라”

『靈樞衛氣』 “能別陰陽十二經者는 知病之所生하고 知候虛實之所在者는 能得病之高下하고 知六府之氣街者는 能知解結契紐於門戶라 能知虛實之堅軟者는 知補瀉之所在하고 能知六經標本者는 可以無惑於天下라”

『素問經絡論』 “經有常色하고 而絡은 無常하야 變也니이다 帝曰 經之常色은 何如오 岐伯曰 心赤 肺白 肝青 脾黃 腎黑하니 皆亦應其經脈之色也니이다 帝曰 絡之陰陽이 亦應其經乎이 岐伯曰 陰絡之色은 應其經하고 陽絡之色은 變無常하야 隨四時而行也니 寒多則凝泣하니 凝泣則青黑하고 熱多則淖澤하니 淖澤則黃赤하니

1) ①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教室,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88. pp. 45~47.
 ② 梁運通의, 黃帝內經類析, 서울, 一中社, 1986. pp. 87~88
 ③ 王洪圖의,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7. pp. 1136~1142.
 2)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教室,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88, p. 45.

나 此皆常色이라 謂之無病이오”

『素問徵四失論』 “夫經脈이 十二요 絡脈이 三百六十五나 此는 皆人之所明知요 工之所循用也라”

『靈樞九針十二原』 “經脈十二요 絡脈十五라”

以上的 內容을 綜合하여 보면, 안으로는 臟腑로부터 밖으로는 肢節에 까지 모두를 連結시켜주는 經絡은 氣血을 循環시키고, 陰陽의 氣運을 運營시키고, 筋骨을 滋養시키고, 關節을 順調롭게 하여주는 機能을 가지고 있으므로, 診斷에 應用하여 死生을 判斷하고, 治療에 應用하여 百病에 對處하고, 豫防에 活用되어 虛實을 調節시켜주는 役割을 하는 重要한 構成成分이다. 그러므로 醫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經絡에 대하여 明確하게 把握하여, 經絡을 잘 活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經絡은 다시 經과 絡으로 區分하여 分肉의 사이를 숨어서 行하는 것은 經으로 十二個가 있고, 經에서 가지를 쳐서 나오면서 항상 바깥으로 드러나게 行하는 것은 絡으로 十五絡脈과 三百六十五個의 絡脈이 있다. 그리고 絡脈에서 다시 분리되어 皮膚까지 이르는 것을 孫絡이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經絡系統으로는 十二經別, 十二經筋, 十二皮部 등이 있다.

2) 名稱 및 特性

經絡은 手太陰肺經, 手陽明大腸經, 足陽明胃經, 足太陰脾經, 手少陰心經, 手太陽小腸經, 足太陽膀胱經, 手厥陰心包經, 手少陽三焦經, 足少陽膽經, 足厥陰肝經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名稱에 대하여는 『素問陰陽類論』, 『素問陰陽別論』, 『靈樞經脈別論』, 『靈樞太陰陽明論』 등에서 陰陽의 盛衰離合에 의거하여 三陰三陽으로 된다고 하였다.

3) 經絡의 分布³⁾

經絡은 人體에 모두 分布하고 있는데 그 特徵을 살펴보면, 머리에서는 少陽經은 側面으로, 太陽經은 後面으로, 陽明經은 전면으로 흐르고 있다. 몸통에서는 陰經은 胸腹部를, 陽經에서는 背腰部를 흐르고 있다. 四肢에서는 一般的으로 陰經은 안쪽, 陽經은 바깥쪽을 흐르고 있다.

經絡은 일정한 循行路線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經絡과도 密接한 關聯을 가지고 있다. 經絡이 서로 交叉하는 方法으로는 手太陰經과 手陽明經이 만나는 것처럼 陰經과 陽經이 서로 만나는 것과, 같은 이름의 手足陽經이 머리에서 만나는 것처럼 陽經과 陽經이 만나는 것과, 足少陰經과 手少陰經이 만나는 것처럼 陰經과 陰經이 만나는 것이 있다.

4) 經絡氣運의 運行順序

經脈의 內部를 循環하는 것은 營氣이므로 『靈樞營氣』에 나타난 것과 같이 手太陰으로부터 始作하여 手陽明 足陽明 手陽明 手少陰 手太陽 足太陽 足少陰 手厥陰 手少陽 足少陽 足厥陰의 順序로 흐르게 된다.

十二經脈의 循行規則은 『靈樞逆順肥瘦』에 “手之三陰은 從臍走手하고 手之三陽은 從手走頭하며 足之三陽은 從頭走足하고 足之三陰은 從足走腹하니이 다”라고 하였고, 十二經脈의 表裏關係는 『素問血氣形志篇』에 “足太陽이 與少陰으로 爲表裏하고 少陽이 與厥陰으로 爲表裏하고 陽明與太陰으로 爲表裏하니 是謂足之陰陽也. 手太陽이 與少陰으로 爲表裏하고 少陽이 與心主로 爲表裏하고 陽明이 與太陰으로 爲表裏

3) ①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敎室,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88. pp. 61~64.

② 梁運通의, 黃帝內經類析, 서울, 一中社, 1986. pp. 90~94.

③ 王洪圖의,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7. pp. 1143~1151.

나 是謂手之陰陽也라⁴⁾라고 하였다.

5) 十二經脈의 循行 및 病證⁴⁾

『靈樞經脈』에 十二經脈의 循行과 病證에 대하여 仔細하게 나오는데, 이중에서 十二經脈의 循行路線을 간단하게 要約하면 아래와 같다. 十二經脈의 病證은 是動病과 所生病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現在使用되고 있는 是動病所生病과 一致하므로 省略하기로 한다.

(1) 手太陰肺經

中焦 → 大腸 → 胃口 → 膈 → 肺 → 肺系 → 腋下 → 膈內 → 肘中 → 臂內上骨下廉 → 寸口 → 魚際 → 大指之端 → [支者] → 腕後 → 次指內廉

(2) 手陽明大腸經

大指次指之端 → 指上廉 → 合谷兩骨之間 → 兩節之中 → 臂上廉 → 肘外廉 → 上膈外前廉 → 上肩 → 髃骨之前廉 → 柱骨之會上 → 缺盆 → 肺 → 膈 → 大腸 → [支者] → 缺盆 → 頸 → 頰 → 齒中 → 口 → 人中 → 鼻孔

(3) 足陽明胃經

鼻之交頰中 → 鼻外 → 上齒中 → 口 → 唇 → 承漿 → 頤後下廉 → 大迎 → 頰車 → 耳前 → 客主人 → 髮際 → 額顛 → [支者] → 大迎 → 人迎 → 喉嚨 → 缺盆 → 膈 → 胃 → 脾 → [直者] → 缺盆 → 乳內廉 → 臍 → 氣街中 → [支者] → 胃口 → 腹裏 → 氣街 → 髀關 → 伏兔 → 膝膑 → 脛外廉 → 足跗 → 中指內間 → [支者] → 下廉三寸 → 中指外間 → [支者] → 跗上 → 大指間

(4) 足太陰脾經

大指之端 → 指內側白肉際 → 核骨 → 內踝前廉 →

踰內 → 脛骨後 → 膝股內前廉 → 腹 → 脾 → 胃 → 膈 → 咽 → 舌本 → 舌下 → [支者] → 胃 → 膈 → 心中

(5) 手少陰心經

心中 → 心系 → 膈 → 小腸 → [支者] → 心系 → 咽 → 目系 → [直者] → 心系 → 肺 → 腋下 → 膈內後廉 → 肘內 → 臂內後廉 → 掌後脫骨之端 → 掌內後廉 → 小指

(6) 手太陽小腸經

小指之端 → 手外側上腕 → 踝中 → 臂骨下廉 → 肘內側兩筋之間 → 膈外後廉 → 肩解 → 肩胛 → 肩上 → 缺盆 → 心 → 咽 → 膈 → 胃 → 小腸 → [支者] → 缺盆 → 頸 → 頰 → 目銳眦 → 耳中 → [支者] → 頰 → 頤 → 鼻 → 目內眦 → 顛

(7) 足太陽膀胱經

目內眦 → 額 → 顛 → [支者] → 顛 → 耳上角 → [直者] → 顛 → 腦 → 項 → 肩膊內 → 脊 → 腰 → 膕 → 腎 → 膀胱 → [支者] → 腰中 → 脊 → 腎 → 膕中 → [支者] → 膕 → 胛 → 脊內 → 髀樞 → 髀外 → 後廉 → 膕中 → 踰內 → 外踝之後 → 京骨 → 小指外側

(8) 足少陰腎經

小指之下 → 足心 → 然谷之下 → 內踝之後 → 跟中 → 踰內 → 膕內廉 → 股內後廉 → 脊 → 腎 → 膀胱 → [支者] → 腎 → 肝 → 膈 → 肺 → 喉嚨 → 舌本 → [支者] → 肺 → 心 → 胸中

(9) 手厥陰心包經

胸中 → 心包絡 → 膈 → 三焦 → [支者] → 胸 → 脇 → 腋三寸 → 腋 → 膈內 → 肘中 → 臂 → 兩筋之間 → 掌中 → 中指 → [支者] → 掌中 → 小指次指

(10) 手少陽三焦經

4) 梁運通의, 黃帝內經類析, 서울, 一中社, 1986. pp.124~127.

小指次指之端 → 兩指之間 → 手 → 腕 → 臂外兩骨之間 → 肘 → 臑外 → 肩 → 缺盆 → 膻中 → 心包 → 膈 → 三焦 → [支者] → 膻中 → 缺盆 → 項 → 耳後 → 耳上角 → 頰 → 頤 → [支者] → 耳後 → 耳中 → 耳前 → 客主人 → 頰 → 目銳眦

(11) 足少陽膽經

目銳眦 → 頭角 → 耳後 → 頸 → 肩上 → 缺盆 → [支者] → 耳後 → 耳中 → 耳前 → 目銳眦 → [支者] → 銳背 → 大迎 → 頤 → 頰車 → 頸 → 缺盆 → 胸中 → 膈 → 肝 → 膈 → 脇裏 → 氣街 → 毛際 → 髀厭中 → [直者] → 缺盆 → 腋 → 胸 → 季脇 → 髀厭中 → 髀陽 → 膝外廉 → 輔骨之前 → 絕骨之端 → 外踝之前 → 足跗上 → 小指次指之間 → [支者] → 跗上 → 大指之間 → 大指歧骨 → 爪甲 → 三毛

(12) 足厥陰肝經

大指叢毛之際 → 足跗上廉 → 內踝一寸 → 上踝八寸 → 臑內廉 → 股陰 → 毛中 → 陰器 → 小腹 → 胃 → 肝 → 膈 → 脇肋 → 喉嚨之後 → 頰頰 → 目系 → 額 → 巔 → [支者] → 目系 → 頰裏 → 唇內 → [支者] → 肝 → 膈 → 肺

다만 『靈樞邪客』에서는 “手太陰之脈은 出於大指之端¹⁾ 內屈²⁾ 循白肉際³⁾ 至本節之後太淵이라 留以澹⁴⁾ 外屈⁵⁾ 上於本節下⁶⁾ 內屈⁷⁾ 與陰諸絡으로 會於魚際⁸⁾ 數脈并注⁹⁾ 其氣滑利¹⁰⁾ 伏行壅骨之下¹¹⁾ 外屈 出於寸口而行¹²⁾ 上至於肘內廉¹³⁾ 入於大筋之下¹⁴⁾ 內屈 上行臑陰¹⁵⁾ 入腋下 內屈 走肺¹⁶⁾ 此順行逆數之屈折也¹⁷⁾ 心主之脈은 出於中指之端¹⁸⁾ 內屈¹⁹⁾ 循中指內廉²⁰⁾ 以上留於掌中²¹⁾ 伏行兩骨之間²²⁾ 外屈 出兩筋之間²³⁾ 骨肉之際²⁴⁾ 其氣滑利²⁵⁾ 上行三寸 外屈²⁶⁾ 出行兩筋之間²⁷⁾ 上至肘內廉²⁸⁾ 入於小筋之下²⁹⁾ 留兩骨之會³⁰⁾ 上入於胸中³¹⁾ 內絡於心脈³²⁾”라고 하여 五輸穴이

四肢末端에서 始作되어 肘膝關節로 끝나는 것과 같은 순서로 經絡의 逆順을 描寫하고 있다. 이러한 순서는 馬王堆醫書중의 陰陽十一脈灸經의 肺經의 經絡路線과 유사하지만 陰陽十一脈灸經보다는 훨씬 仔細하게 記錄되어 있고 陰陽十一脈灸經에서는 心包經에 대한 描寫가 없으므로, 이 部分은 馬王堆醫書가 成立된 후에 만들어진 것이나 『內經經脈』이 만들어지기 전에 作成된 文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十二經脈의 機能⁵⁾

十二經脈의 機能은 生理病理診斷治療의 領域으로 나누어 說明할 수 있다.

우선 生理面에서 보면 『靈樞』의 〈經脈〉, 〈本藏〉, 〈營衛生會〉, 〈邪客〉, 〈邪氣臟腑病形〉 등에서 ‘運行氣血·營養周身·抗禦病邪·保衛機體’의 機能이 있다고 하였고, 『靈樞海論』에 “夫十二經脈者는 內屬於府藏¹⁾ 外絡於肢節²⁾”하여 經脈이 人體의 內外, 表裏, 上下溝通으로 하나의 統一된 整體를 이루는 役割을 한다고 하였고, 『靈樞經別』에서 “人之合於天道也 內有五藏³⁾ 以應五音五色五時五味五位也⁴⁾ 外有六府⁵⁾ 以應六律⁶⁾”이라 하니 六律建陰陽諸經 而合之十二月十二辰十二節十二經水十二時十二經脈者하니 此五藏六府之所以應天道⁷⁾”하여 經絡과 自然環境과의 相應關係를 說明하였다.

病理面에서는 人體에 邪氣가 侵犯하게 되면 經絡은 運行氣血·營養周身·抗禦病邪·保衛機體의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게 되어 經絡과 連結된 內臟, 五

5) ①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教室,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88. pp. 48~58.
② 梁運通외, 黃帝內經類析, 서울, 一中社, 1986. pp. 102~104.
③ 王洪圖외,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7. pp. 1151~1153.

官, 四肢, 筋骨 등에 病變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素問』의 (繆刺論)과 (皮部論)과 (藏氣法時論) 및 『靈樞』의 (經脈)에서 外部의 邪氣는 반드시 經脈을 통하여 人體의 內臟, 五官, 四肢, 筋骨 등에 傳導하게 되는 現象과 證候를 밝혀 놓았고, 특히 『素問診要經終篇』과 『靈樞經脈』에서는 十二經脈에서 經氣絶의 證候에 대하여 詳細하게 밝히고 있다.

診斷面에서는 『靈樞官能』에서 十二經脈이 흘러가는 部位와 病變의 關係로써 循經診斷의 方法을 說明하였고, 『靈樞經脈』에서 手魚部の 絡脈의 隆起와 陷沒 그리고, 色澤의 變化로 診察하는 方法을 說明하였다.

治療面에서는 內經의 거의 全部分에서 經絡을 利用한 鍼灸治療를 說明하였다.

7) 標本⁶⁾

十二經脈의 標本에 대하여서는 『靈樞根結』에 "太陽根於至陰하고 結於命門하니 命門者는 目也오 陽明根於厲兌하고 結於顴大하니 顴大者는 鉗耳也오 少陽根於竅陰하고 結於窗籠하니 窗籠者는 耳中也라 …… 太陰根於隱白하고 結於太倉이오 少陰根於湧泉하고 結於廉泉이오 厥陰根於大敦하고 結於玉英하고 絡於臚中이라 …… 足太陽根於至陰하고 溜於京骨하고 注於崑崙하고 入於天柱飛揚也라 足少陽根於竅陰하고 溜於丘墟하고 注於陽輔하고 入於天容光明也라 足陽明根於厲兌하고 溜於衝陽하고 注於下陵하고 入於人迎豐隆也이라 手太陽根於少澤하고 溜於陽谷하고 注於小海하고 入於天窗支正也라 手少陽根於關衝하고 溜於陽池하고 注於

支溝하고 入於天關外關也라 手陽明根於商陽하고 溜於合谷하고 注於陽谿하고 入於扶突 偏歷也라 此所謂十二經者의 盛絡이니 皆當取之니이다"라고 하였고, 『靈樞衛氣』에 "足太陽之本은 在跟以上五寸中하고 標는 在兩絡命門하니 命門者는 目也라 足少陽之本은 在竅陰之間하고 標는 在窗籠之前하니 窗籠者는 耳也라 足少陰之本은 在內踝下上三寸中하고 標는 在背腧與舌下兩脈也라 足厥陰之本은 在行間上五寸所하고 標는 在背腧也라 足陽明之本은 在厲兌하고 標는 在人迎하니 頰掖頰頰也라 足太陰之本은 在中封前上四寸之中하고 標는 在背腧與舌本也라 手太陽之本은 在外踝之後하고 標는 在命門之上寸也라 手少陽之本은 在小指次指之間上二寸하고 標는 在耳後上角下外皆也라 手陽明之本은 在肘骨中 上至別陽하고 標는 在頰下合鉗上也라 手太陰之本은 在寸口之中하고 標는 在腋內動也라 手少陰之本은 在銳骨之端하고 標는 在背腧也라 手心主之本은 在掌後兩筋之間二寸中하고 標는 在腋下三寸也라 凡候此者는 下虛則厥하고 下盛則熱하며 上虛則眩하고 上盛則熱痛이라 故로 實者는 絶而止之하고 虛者는 引而起之라"라고 하여 言及하고 있다.

韓醫學理論에 있어서 標本을 運用한 理論은 매우 많이 있고, 그 意義 또한 매우 廣大하다. 이를 要約하면 內部는 本이고 外部는 標이며, 正氣는 本이고 邪氣는 標이며, 病因은 本이고 症狀은 標이며, 先病은 本이고 後病은 標가 되는 것 등이다. 『靈樞衛氣』에서는 十二經脈의 標本에 대하여 四肢가 本이 되고 頭面軀幹이 標가 된다고 하였고, 『靈樞根結』에서는 十二經脈의 根結이라고 하여 十二經脈의 標本에 대하여 『靈樞衛氣』에서와 類似한 內容의 記述을 하였으니 經絡學說에서의 標本은 經絡의 上下部位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다.

十二經脈의 標本理論은 疾病의 診斷과 그 辨證 施治에 상당한 價値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6) ①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教室,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88. pp. 104~105.
② 梁運通의, 黃帝內經類析, 서울, 一中社, 1986. pp. 114~115.
③ 王洪圖의,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7. pp. 1153~1155.

『靈樞衛氣』에서 “凡候此者는 下虛則厥하고 下盛則熱하며 上虛則眩하고 上盛則熱痛이라 故로 實者는 絶而止之하고 虛者는 引而起之라”라고 하여 아래에 위치하는 것이 본으로 本虛하면 寒厥이 생기고 邪熱이 아래에서 充盛하면 發熱의 症狀이 나타나며, 위에 위치하는 것은 標로 表虛하면 眩暈의 症狀이 나타나고 表實하면 痛症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治療에 있어서도 標本の 虛實을 상세하게 觀察하여 實하면 邪盛하게된 原因을 除去하고 虛하면 氣血循行을 고르게 하여 正氣를 回復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素問標本病傳論』에서 “知標本者는 萬舉萬當하고 不知標本者는 是謂妄行이라”라고 하였다.

治療面에 있어서는 『靈樞衛氣』에 “能知六經標本者는 可以無惑於天下라”라고 하여 經脈의 標本理論이 疾病治療에 있어서 매우 重要한 役割을 한다고 하였으니, 그 具體的인 內容을 보면, 『靈樞終始』에 “病在上者는 下取之하고 病在下者는 高取之하며 病在頭者는 取之足하고 病在腰者는 取之膕이라”라고 하여 上病은 아래에서 治療하고, 下病은 위에서 治療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經氣가 上下로 서로 連結되어 있으므로 “上病下取 下病上取”의 治療原則의 基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四肢 下端의 腧穴들이 頭胸腹背 등의 疾患에 應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보아 經脈의 標本理論은 本은 經脈의 根本으로 經氣가 始作되는 곳이며 下部에 위치하는 것이고, 標는 經脈의 末端으로 經氣가 收斂되는 곳이며 上部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 氣街⁷⁾

7) ①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教室,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88. p. 106.

② 梁運通의, 黃帝內經類析, 서울, 一中社, 1986. p. 115.

(1) 氣街의 意義

『內經』에서는 氣街에 대하여 『素問』의 〈痿論〉, 〈刺禁論〉, 〈氣膈論〉, 〈骨空論〉, 〈水熱穴論〉과, 『靈樞』의 〈經脈〉, 〈雜病〉, 〈海論〉, 〈逆順肥瘦〉, 〈衛氣 衛氣失常〉, 〈動輸〉, 〈刺節眞邪〉에서 言及되고 있는데, 대체로 세가지의 意味로 쓰여지고 있다. 胸部, 腹部, 頭部, 脛部에서 氣를 모아서 運行시키는 通路라는 意味와, 氣街動脈이라는 穴位의 意味와, 體表에 나타나는 一定한 部位라는 意味로 使用되고 있다. 그러나 現在에 와서는 『靈樞衛氣』의 “知六府之氣街者는 能知解結契紹於門戶라”와 『靈樞動輸』의 “夫四末陰陽之會者는 此氣之大絡也 四街者는 氣之徑路也라 故絡絶則徑通하고 四末解則氣從合하니 相輸如環이라”에 依據하여 거의 모두가 氣街에 대하여 氣를 모아서 運行시키는 作用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2) 氣街의 分布와 構成

『靈樞衛氣』에서는 “胸氣有街하고 腹氣有街하고 頭氣有街하고 脛氣有街라 故氣在頭者는 止之於腦하고 氣在胸者는 止之膺與背膂하고 氣在腹者는 止之背膂與衝脈於臍左右之動脈者하고 氣在脛者는 止之於氣街 與承山踝上以下라”라고 하여 氣街의 分布는 頭部는 腦, 胸部는 膺과 十一椎以上の 背膂, 腹部는 十一椎以下の 背膂와 臍左右의 動脈이 있는 衝脈, 脛部는 氣街와 承山 踝上以下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특히 胸部와 腹部의 氣街는 모두 몸통의 前後에 分布되어 서로 相應하게 分布되어서, 五臟六腑의 疾病을 背輸穴이나 腹募穴에서 治療할 수 있게 하는 理論的인 根據를 提供하여 준다.

氣街는 人體를 頭胸腹脛의 네부분으로 나누어

③ 王洪圖의,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7. pp. 1162~1166.

各 部位가 제각기 나뉘어 獨立인 組織과 系統을 維持하면서 제 각각의 機能을 發揮하고 있으면서, 各 部分에 分布된 經絡系統과 連結되어 經絡의 疏通을 원활하게 하는 役割을 한다. 특히 四海(腦爲髓海, 膻中爲氣海, 胃爲水穀之海, 衝脈爲血海)와 位置의으로도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으며, 五臟六腑와도 緊密하게 連結되어 있으므로 臟腑의 氣血을 氣街를 통하여 여러 經絡과 體表에 보내주는 役割을 하게 된다.

氣街를 利用한 治療法으로는 『靈樞衛氣』에 “取此者 用毫鍼^{호대} 必先按而在久^{호대} 應於手^{이러면} 乃刺而予^라 所治者 頭痛眩仆 腹痛中滿暴脹 及有新積^이 痛可移者 易已也^{이니와} 積不痛^{이면} 難已也^라”라고 하여 頭痛眩仆 腹痛中滿暴脹 及有新積 등의 症狀이 나타나는 氣街의 疾病은 毫鍼을 使用하여 治療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韓醫學에서의 ‘上病下取 下病上取’하는 理論의 根據가 된다고 할 수 있다.

9) 十五絡脈⁸⁾

絡脈에 대하여 『靈樞脈度』에 “經脈爲裏^오 支而橫者爲絡^{이오} 絡之別者爲孫^{이라}”라고 하였고, 『靈樞經脈』에 “經脈十二者 伏行分肉之間^{하야} 深而不見^{하고} …… 諸脈之浮而常見者 皆絡脈也^라 …… 諸脈之浮而常見者 皆絡脈也^라 …… 黃帝曰 諸絡脈은 皆不能經大節之間^{하고} 必行絕道而出入^{하야} 復合於皮中^{하니} 其會皆見於外^라”라고 하였고, 『素問繆刺論』에 “夫邪之客於形也^에 必先舍於皮毛^{하니나} 留而不去^{하면} 入舍於孫脈^{하고} 留而不去^{하면} 入舍於絡脈

라고 留而不去^{하면} 入舍於經脈^{하야} 內連五臟^{하고} 散於腸胃^라”라고 하여, 經脈은 비교적 人體의 깊은 部位를 一定한 路線을 따라서 흐르는 것인데 반해, 經脈에서 分支되어 橫行하는 脈絡을 絡脈이라고 하였고, 絡脈에서 다시 分支되어 皮膚에 까지 이르는 脈絡을 孫絡이라고 한다고 하였으며, 絡脈은 經脈에 橫行하고 交叉하는 것으로 人體의 臟腑, 器官, 孔竅 및 皮肉筋骨 등을 連結시켜주는 通路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靈樞九針十二原』에 “經脈十二^오 絡脈十五^라”라고 하고, 『素問氣穴論』에 “孫絡三百六十五穴會¹ 亦以應一歲^{하니} 以溢奇邪^{하며} 以通榮衛^라”라고 하여 絡脈系統을 十五絡脈과 三百六十五個의 絡脈으로 區分하여 說明하고 있다.

『靈樞小針解』에 “節之交三百六十五會者 絡脈之滲灌諸節者也^라”라고 하였듯이 人體의 氣血을 全身에 供給시켜주는 作用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靈樞邪氣臟腑病形』에 “十二經脈 三百六十五絡이 其血氣¹ 皆上於面而走空竅 …… 其氣之津液이 皆上熏於面^{이라}”라고 하고, 『靈樞癰疽』에 “腸胃受穀에 …… 中焦出氣如露^{하니} 上注谿谷 而滲孫脈^{하야} 津液和調^{하야} 變化而赤爲血^{이라}”라고 하여 血液이 脈內를 흐르다가 孫絡脈을 따라서 脈外로 흐르게 되어 脈外의 津液과 化合하여 臟腑組織 및 皮膚膜理에 營養을 供給하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素問氣穴論』에 “孫絡三百六十五穴會¹ 亦以應一歲^{하니} …… 以通營衛^라”라고 하여 孫絡이 營衛를 疏通시켜주는 作用이 있다고 하였고, 『靈樞動輸』에 “夫四末陰陽之會者 此氣之大絡也^오”라고 하여 陰陽經脈이 四肢에서 만나는 部分을 氣의 大絡이라고 하여 絡脈은 營衛의 氣運을 疏通시켜주는 役割이 있다는 것을 說明하고 있다.

한편 十五絡脈에 대하여서는 『靈樞經脈』에

8) ①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教室,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88. pp. 147~157.
 ② 梁運通의, 黃帝內經類析, 서울, 一中社, 1986. pp. 98~99, 106~107.
 ③ 王洪圖의,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7. pp. 1181~1186.

서 循行路線과 病證에 대하여 言及하고 있으니, 十二經脈에서 각각 하나씩의 絡脈이 있고, 任脈과 督脈에서 하나씩의 絡脈이 있고, 脾藏에는 다른 하나의 大絡이 있으므로 十五絡脈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素問平人氣象論』에 “胃之大絡 名曰虛里”라고 하여 胃에도 大絡이 하나 더 있다고 하여 모두 十六絡脈이 된다. 그러나 『靈樞九針十二原』이나 『靈樞經脈』 등의 文章을 살펴보면 모두 絡脈이 十五個라고 하였으므로 여기서도 便宜上 十五絡脈이라고 말하기로 하였다.

十五絡脈循行의 特徵을 살펴보면, 우선 十五絡脈에서 任脈督脈脾의 大絡을 除外한 나머지 十二經의 大絡은 모두 該當經脈이 흐르는 四肢의 腕踝部位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十五絡脈의 支脈은 서로 表裏가 되는 臟腑의 經脈으로 連結되어 있으며, 大部分의 十五絡脈은 四肢의 體表에 分布되어 있고, 手太陰의 絡脈을 除外한 나머지의 十五絡脈은 循行路線이 大體的으로 四肢末端에서 몸통이나 머리를 향하는 求心性의 流注를 나타내어, 十二經絡이 如環無端하는 것과는 다르고 오히려 馬王堆帛書의 十一經脈의 流注⁹⁾와 유사한 점을 보인다.

『素問繆刺論』에 “夫邪客大絡者 左注右하고 右注左하며 上下左右 與經相干 而布於四末”이라고 하여 大絡은 人體의 內外上下를 經脈을 따라서 흐르기 때문에 四肢末端에 까지 分布된다고 하였다.

2. 奇經八脈¹⁰⁾

9)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湖南省,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p. 90~94.

10) ①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教室,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88, pp. 111~117.

② 梁運通의, 黃帝內經類析, 서울, 一中社, 1986, pp. 94~97, 104~106.

『內經』에서 經絡學說이 현재의 經絡學說과 크게 다른 部分은 奇經八脈과 關聯된 部分이다.

『內經』에서는 督脈, 任脈, 衝脈, 維脈, 帶脈, 蹻脈 등의 用語가 包含되어 있으나, 奇經八脈이라는 用語가 形成되지 않았고, 또 督脈, 任脈, 衝脈에 대해서는 比較的 仔細하게 言及되었으나 나머지 維脈, 帶脈, 蹻脈에 대하여서는 거의 言及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內經』에서의 奇經八脈에 대한 理論은 十二經脈理論이 거의 完成된 것과는 달리 奇經八脈에 대한 理論은 形成되는 過程中에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奇經八脈이라는 用語가 처음으로 나타난 文獻은 『難經』으로 <二十七難>에서 “脈有奇經八脈者 不拘於十二經 何也”라고 하여 奇經八脈이 十二經脈과는 別途로 作用하는 經絡系統으로 認識하였고, <二十八難>과 <二十九難>에서도 奇經八脈에 대하여 仔細하게 言及하여, 後世의 奇經八脈研究에 커다란 貢獻을 하였다¹¹⁾.

『內經』에서는 『素問』의 <上古天真論>, <舉痛論>, <痿論>, <氣膈論>, <骨空論>과 『靈樞』의 <經脈>, <營氣>, <脈度>, <寒熱病>, <海論>, <逆順肥瘦>, <衛氣>, <動輸>, <五音五味>, <百病始生> 등에 部分的으로 記錄되어 있다. 이에 『內經』에 나타난 奇經八脈의 各各에 대하여 各 經脈別로 考察하고자 한다.

1) 衝脈

衝脈의 循行經路에 대해서 『內經』에 나오는 文章을 모아 各各의 內容을 簡略하게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素問痿論』 ▶ 衝脈者 …… 與陽明 合宗筋 →

③ 王洪圖의,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7, pp. 1166~1181.

11) 崔昇勳, 難經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1998, pp. 157~169.

會氣街 …… 屬帶脈 → 絡督脈

『素問·舉痛論』 ▶ 起於關元 → 隨腹直上 →

『素問·骨空論』 ▶ 氣街 → 少陰之經 → 俠齊上行
→ 至胸中

『靈樞·五音五味』 ▶ 衝脈任脈：皆起於胞中 →
上循背裏

▶ 浮而外者：循腹右 → 上行 → 會於咽喉
喉 → 別而絡脣口

『靈樞·逆順肥瘦』 ▶ 其上者：出于頰頰

▶ 其下者：注少陰之大絡 → 出氣街 → 循陰股內廉 → 入臑中 → 胛骨內 → 內踝後屬而別

▶ 其下者：並少陰之經

▶ 其前者：伏行出跗屬 → 下循跗 → 入

大指間

『靈樞·動輸』 ▶ 與少陰之大絡 起於腎下 → 出氣街 → 循陰股內廉 → 邪入臑中 → 循胛骨內廉 → 并少陰之經 → 下入內踝之後 → 入足下

▶ 其別者：邪入踝 → 出屬跗上 → 入大指之間

이에 衝脈의 循行經路를 다시 綜合하여 보면, 關元 또는 胞中에서 起始하여 氣街를 거친 후에 上行하는 것으로는 등으로 가는 것과, 배꼽주위를 따라 올라가서 胸中에 이르는 것과, 咽喉, 口脣 및 頰頰에 이르는 것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氣街에서 股內廉을 따라 臑中에 이르고, 胛骨內廉과 足內踝後에 이르러 足下로 가는 것과, 內踝에서 跗屬을 거쳐 大指間으로 이르는 것이 있다.

衝脈은 五臟六腑의 바다가 되는 것으로, 五臟六腑가 모두 衝脈으로부터 氣運을 받는 것이다. 衝脈은 위로는 陽氣를 滲入시키고, 아래로는 三陰經과 下肢의 絡脈에 氣運을 넣어주고, 肌肉을 따뜻하게 하여준다. 그리고, '經脈之海' 또는 '十二經之海'라고 하여 滲灌豁谷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衝脈이 身體의 成長이나 生殖과 관계

가 깊다고 認識하였으니, 天癸가 이르면 任脈衝脈이 盛하여 生殖能力이 나타나게 되고, 만일 任脈衝脈이 衰少하면 天癸가 竭하며 生殖機能을 잃게 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任脈衝脈은 髮鬚의 生長에 있어서 重要的 役割을 한다고 하였다.

한편 衝脈의 異常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症狀은 逆氣裏急, 喘動應手, 鬚不生, 下肢厥冷, 體重身痛 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衝脈과 關聯된 病症들에 관한 記錄은 다음과 같다.

『素問·骨空論』 “衝脈이 爲病하면 逆氣裏急”

『素問·舉痛論』 “寒氣客於衝脈하면 衝脈起於關元하야 隨腹直上하니 寒氣客則脈不通하고 脈不通則氣因之 故喘動應手矣.”

『靈樞·五音五味』 “宦者去其宗筋하야 傷其衝脈하야 血瀉不復하고 皮膚內結하야 脣口不榮 故鬚不生이니이다”

『靈樞·逆順肥瘦』 “夫衝脈者는 …… 故로 別絡이 結則跗上이 不動하고 不動則厥하고 厥則寒矣니이다”

『靈樞·海論』 “血海有餘하면 則常想其身大하야 佛然이나 不知其所病이오 血海不足하면 亦常想其身小하야 狹然이나 不知其所病이리”

『靈樞·百病始生』 “虛邪之中人也| …… 在伏衝之時에 體重身痛이라 …… 息而成積이라 …… 其著於伏衝之脈者는 喘喘應手而動하고 發手則熱氣下於兩股 如湯沃之狀이라”

2) 任脈

任脈의 循行經路에 대해서 『內經』에 나오는 文章을 모아 各各의 內容을 簡略하게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素問·骨空論』 ▶ 起於中極之下 → 上毛際 → 循腹裏 → 上關元 → 至咽喉 → 上頤循面入目

『靈樞·營氣』 ▶ 絡陰器 → 上過毛中 → 入臑中 → 上循腹裏：是任脈也

『靈樞五音五味』 ▶ 衝脈任脈：皆起於胞中 → 上循背裏

▶ 其浮而外者：循腹右 → 上行 → 會於咽喉 → 別而絡脣口

任脈의 脈長은 四尺五寸이라고 하였고, 任脈도 衝脈과 같이 身體의 成長이나 生殖과 關係가 깊다고 認識하였으니, 天癸가 이르면 任脈衝脈이 盛하여 生殖能力이 나타나게 되고, 만일 任脈衝脈이 衰少하면 天癸가 竭하며 生殖機能을 잃게 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任脈衝脈은 髮鬚의 生長에 있어서 重要한 役割을 한다고 하였다.

한편 任脈의 異常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症狀은 七疝, 帶下瘕聚, 腰痛, 鬚不生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任脈과 관련된 病症들에 관한 記錄은 다음과 같다.

『素問上古天真論』 “七七에 任脈이 虛하며 太衝脈이 衰少하여 天癸竭하며 地道不通 故로 形壞而無子也라”

『素問骨空論』 “任脈이 爲病하면 男子는 內結七疝하고 女子는 帶下瘕聚로”

『素問刺腰痛論』 “會陰之脈이 令人腰痛하면 痛上漑漑然汗出하니 汗乾令人欲飲하고 飲已欲走하니”

『靈樞五音五味』 “其有天宦者는 …… 此天之所不足也니 其任衝不盛하고 宗筋不成하며 有氣無血하여 脣口不榮 故鬚不生이니이다”

3) 督脈

督脈의 循行經路에 대해서 『內經』에 나오는 文章을 모아 各各의 內容을 簡略하게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素問骨空論』 ▶ 起於少腹 → 下行骨中央

▶ 其絡이 循陰器 → 合篡間 → 繞篡後 → 別繞臀 → 至少陰 → 與巨陽 中絡者 合少陰 → 上股內後廉 → 貫脊屬腎 → 與太陽 起於目內眦 → 上額交

巔上 → 入絡腦 → 還出 → 別下項 → 循肩膊膊內 → 俠脊抵腰中 → 入循膂絡腎

▶ 其少腹直上者：貫齊中央 → 上貫心入喉 → 上頤環脣 → 上繫兩目之下中央

『靈樞營氣』 ▶ 上額 → 循顛 → 下項中 → 循脊 → 入胝：是督脈也

督脈의 길이는 四尺五寸이라고 하였고, 督脈의 異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症狀은 脊強反折, 衝疝, 女子에서 不妊과 瘕痔, 遺溺, 陰乾 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특히 『素問骨空論』에서 言及된 內容은 循行과정에 관한 表現이 아주 仔細하여 後世 醫家들이 督脈을 言及하는데 있어서 많이 活用되었다.

한편 督脈의 異常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症狀은 脊強反折, 衝疝, 不孕瘕痔, 遺溺陰乾, 腦風 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督脈과 관련된 病症들에 관한 記錄은 다음과 같다.

『素問骨空論』 “督脈이 爲病하면 脊強反折이라 …… 此生病이 從少腹上하여 衝心而痛하여 不得前後하면 爲衝疝이요 其女子는 不孕瘕痔하며 遺溺陰乾이라 督脈生病은 治督脈이니 治在骨上이요 甚者는 在齊下營이라”

『素問風論』 “風氣 循風府而上하면 則爲腦風이라”

『靈樞經脈』 “督脈實 則脊強反折하고 虛則 頭重高搖라”

4) 蹻脈

蹻脈의 循行經路에 관한 記錄을 살펴보면 『靈樞寒熱病』에 “足太陽이 …… 乃別陰蹻陽蹻하니 陰陽相交하여 陽入陰出호대 陰陽交於目銳眦하니”라고 하여 蹻脈에는 陰蹻脈과 陽蹻脈이 있다는 것을 밝혔고, 『靈樞脈度』에 “起於然骨之後하고 上內踝之上하여 直上循陰股하여 入陰하고 上循胸裏하여 入缺盆하고

上出人迎之前^{하야} 入頰^{하야} 屬目內眥^{하고} 合於太陽陽蹻而上行^{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陰蹻脈의 循行經路와 類似하다고 認定되고 있다. 蹻脈의 길이는 七尺五寸이라고 하였는데, 『靈樞脈度』에 “黃帝曰 蹻脈有陰陽^{하니} 何脈當其數^오 岐伯曰 男子數其陽^{하고} 女子數其陰^{하니} 當數者^이 爲經^{이오} 其不當數者^이 爲絡也^나이다”라고 하여 蹻脈에는 陰蹻脈과 陽蹻脈이 있다고 하였으나, 『內經』에서는 陽蹻脈의 循行經路에 대하여 言及하지는 않았다.

한편 蹻脈의 異常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症狀는 陰蹻脈과 陽蹻脈에서 모두 눈과 관련지어서 言及하였으니, 目痛의 症狀이 나타날 수 있고, 陽氣가 盛하면 不眠이 되고, 陰氣가 盛하면 多眠이 된다고 하였다. 蹻脈과 關聯된 病症들에 관한 記錄을 陰蹻脈과 陽蹻脈으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 陰蹻脈

『靈樞寒熱病』 “陰蹻陽蹻^{하니} 陰陽相交^{하야} 陽入陰出^{호대} 陰陽交於目眥^{하니} 陽氣盛則瞋目^{하고} 陰氣盛則瞑目^{이라}”

『靈樞脈度論』 “氣并相還則爲濡目^{하고} 氣不榮則目不合^{이라}”

『靈樞大惑論』 “衛氣留于陰^{하면} 不得行于陽^{하고} 留于陰則陰氣盛^{하고} 陰氣盛則陰蹻滿^{하야} 不得入于陽則陽氣虛 故目閉也^라”

• 陽蹻脈

『素問繆刺論』 “邪客于足陽蹻之脈^{하면} 令人目痛^이 從內眥始^라”

『靈樞邪客論』 “衛氣獨衛其外^{하야} 行於陽^{하고} 不得入於陰^{이라} 行於陽^{하면} 則陽氣盛^{하고} 陽氣盛則陽蹻滿^{하야} 不得入於陰^{하고} 陰虛 故目不瞑^{이니}이다”

한편 蹻脈을 使用하여 治療할 수 있는 疾患에 대하여서는, 『靈樞熱病篇』에서 癰病과 目中赤痛을 治療할 수 있다고 하였고, 『素問繆刺論』에

서 邪氣가 足陽蹻의 脈에 客하여 內眥로부터 目痛이 시작된 것을 外踝之下半寸所引 申脈穴을 刺함으로서 治療할 수 있다고 하였다.

5) 帶脈

帶脈의 循行에 대하여는 『靈樞經別篇』에서 “足少陰之正^은 …… 當十四椎^{하야} 出屬帶脈^{이라}”라고 하여 帶脈에 대하여 間斷하게 描寫하였다. 帶脈의 病證에 대하여서는 『素問痿論』에서 “陽明^이 處則宗筋^이 縱^{하고} 帶脈不引^故 足痿不用也^나이다”라고 하여 帶脈이 不引하게 되면 足痿不用하게 된다고 짧게 言及하였다.

6) 維脈

維脈에 대하여서는 『素問刺腰痛論』에 “陽維之脈^이 令人腰痛^{하면} 痛上拂然腫^{이라}”라고 하여 單純하게 腰痛이 있을 때 維脈을 刺鍼하여 疾病을 治療한다고 하였다.

奇經八脈에 관한 내용을 經脈流注와 病證을 爲 主로 分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特徵이 있다. 우선 經脈의 流注路線을 考察하면, 督脈과 任脈을 除外하고 생각하면 奇經에서는 臟腑와 關聯되는 經脈이 없고, 각 奇經사이에서의 表裏配合와 같은 相關關係가 나타나지 않으며, 奇經은 獨立的으로 循行하지 않고 十二正經에서 別途로 行하는 經絡路線이라는 特徵을 把握할 수 있다. 그러나 督脈에서는 腎臟과 心臟으로 經脈이 흐르고, 또한 任脈과 督脈은 서로 表裏關係가 되며, 각각 自體의 輸穴을 가지고 있으므로, 基本的으로는 十二正經과 같은 範疇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滑伯仁은 ‘十四正經’이라고 命名하기도 하였다.

奇經에서의 病證을 보면 衝脈과 任脈과 督脈과 蹻脈에서는 比較的 仔細하게 言及이 되어 있으나, 나머지 奇經에서는 아주 間斷하게 記述되어 있다.

以上으로 보면 十二經絡理論이 內經에서 거의 完成된 것과는 달리, 奇經에 대한 理論은 內經에서는 조금씩 形成되어 가는 過程에 있는 것이고, 難經에 이르러 거의 完成된 理論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腧穴

內經에서의 經穴에 대하여 言及한 部分으로는 一般的인 經穴을 言及한 部分과 十二原穴과 五輸穴과 같이 經穴系統으로 言及한 部分이 있다.

먼저 一般的인 經穴을 言及한 것으로는 『素問氣府論』에 “足太陽脈氣所發者는 七十八穴이니 兩眉頭各一이요 入髮至項 三寸半의 傍五 相去三寸에 其浮氣在皮中者는 凡五行 行五니 五五二十五요 項中大筋兩傍이 各一이요 風腠兩傍이 各一이요 俠背以下 至尻尾二十一節이니 十五間에 各一이요 五臟之俞各五요 六腑之俞各六이요 委中以下至足小指傍이 各六俞라 足少陽脈氣所發者는 六十二穴이니 兩角上이 各二요 直目上髮際內 各五요 耳前角上이 各一이요 耳前角下 各一이요 銳髮下 各一이요 客主人이 各一이요 耳後陷中이 各一이요 下關이 各一이요 耳下牙車之後 各一이요 缺盆이 各一이요 掖下三寸과 脇下至肘 八間이 各一이요 脾樞中傍이 各一이요 膝以下至足 小指次指 各六俞라 足陽明脈氣所發者는 六十八穴이니 額顛髮際傍이 各三이요 面臑骨空이 各一이요 大迎之骨空이 各一이요 人迎이 各一이요 缺盆外骨空이 各一이요 膺中骨間이 各一이요 俠鳩尾之外 當乳下三寸에 俠胃脘이 各五요 俠齊廣三寸이 各三이요 下齊二寸 俠之各三이요 氣街動脈이 各一이요 伏菟上이 各一이요 三里以下로 至足中指가 各八俞니 分之所在穴空이라 手太陽脈氣所發者는 三十六穴이니 目內眥各一이요 目外各一이요 臑骨下 各一이요

耳郭上 各一이요 耳中이 各一이요 巨骨穴이 各一이요 曲掖上骨穴이 各一이요 柱骨上陷者는 各一이요 上天窓四寸이 各一이요 肩解 各一이요 肩解下三寸이 各一이요 肘以下至手小指本이 各六俞라 手陽明脈氣所發者는 二十二穴이니 鼻空外廉項上이 各二요 大迎骨空이 各一이요 柱骨之會 各一이요 髃骨之會 各一이요 肘以下 至手大指次指本이 各六俞요 手少陽脈氣所發者는 三十二穴이니 臑骨下 各一이요 眉後 各一이요 角上이 各一이요 下完骨後 各一이요 項中足太陽之前이 各一이요 俠扶突이 各一이요 肩貞이 各一이요 肩貞下三寸分間이 各一이요 肘以下 至手小指次指本이 各六俞라 督脈氣所發者는 二十八穴이니 項中央이 二요 髮際後中이 八이요 面中이 三이요 大椎以下로 至尻尾及傍이 十五穴이라 至臍下 凡二十一節이니 脊椎法也라 任脈之氣所發者는 二十八穴이니 喉中央이 二요 膺中骨陷中이 各一이요 鳩尾下三寸 胃脘五寸 胃脘以下 至橫骨六寸半이 腹脈法也라 下陰別이 一이요 目下各一이요 下脣一이요 斷斷交一이라 衝脈氣所發者는 二十二穴이니 俠鳩尾外各半寸 至齊寸이 一이요 俠齊下傍 各五分 至橫骨寸이 一이요 腹脈法也라 足少陰舌下와 厥陰毛中急脈이 各一이요 手少陰이 各一이요 陰陽蹻 各一이요 手足諸魚際脈氣所發者는 凡三百六十五穴也라”라고 하였는데 이는 經脈의 氣가 나타나는 穴에 대하여 說明한 것으로 經脈의 氣가 나타나는 곳이란 經脈의 氣가 交會하고 出入하는 곳으로 氣府라고도 하며, 반드시 該當 經脈에서 循行하는 經穴들만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氣府의 총 숫자는 共同으로 나타나는 것을 除外하면 모두 374개로 나타났으며, 그 分布는 手三陽經에서는 頭, 項, 肩, 背, 腹兩側과 下肢外側에; 手三陽經에서는 頭, 面, 耳, 目, 肩兩側, 上肢外側에; 督脈은 面, 頭, 項, 背, 要, 臍部의 正中線에, 任脈에서는 面, 喉, 頸, 胸腹部의 正中線에; 衝脈에서는 鳩尾, 臍腹, 橫骨의 足少陰腎經上에 주로 分布되어 있다.

『素問氣穴論』에 “黃帝問曰 余聞_{토니} 氣穴이 三百六十五로 以應一歲라하니 未知其所라 願卒聞之하노라 …… 臟俞五十穴이요 腑俞七十二穴이요 熱俞五十九穴이요 水俞五十七穴이요 頭上五行이 行五하니 五五二十五穴이요 中膂兩傍이 各五 凡十穴이요 大椎上兩傍이 各一 凡二穴이요 目瞳子浮白이 二穴이요 兩髀厭分中이 二穴이요 犢鼻二穴이요 耳中多所聞이 二穴이요 眉本이 二穴이요 完骨이 二穴이요 項中央이 一穴이요 枕骨이 二穴이요 上關이 二穴이요 大迎이 二穴이요 下關이 二穴이요 天柱二穴이요 巨虛上下廉이 四穴이요 曲牙二穴이요 天突이 一穴이요 天腑二穴이요 天牖二穴이요 扶突이 二穴이요 天窗이 二穴이요 肩解二穴이요 關元이 一穴이요 委陽이 二穴이요 肩貞이 二穴이요 瘡門이 一穴이요 齊一穴이요 胸俞十二穴이요 背俞二穴이요 膺俞十二穴이요 分肉이 二穴이요 踝上橫이 二穴이요 陰陽蹻四穴이요 水俞는 在諸分이요 熱俞는 在氣穴이요 寒熱俞는 在兩骸요 厭中은 二穴이요 大禁이 二十五니 在天腑下五寸라하니 凡三百六十五穴이 鍼之所由行也니이다”라고 하여 人體의 氣穴 三百五十六個에 대하여 言及하고 있으나, 新校正本에서는 三百三十六穴, 吳崐은 三百五十八穴, 馬蒔는 三百五十七穴, 張景岳은 三百四十二穴, 丹波元簡은 三百五十七穴¹²⁾이 된다고 하였으니, 이는 天人相應의 觀點에서 一年 三百六十五日의 숫자를 사용하여 人體의 穴자리와 一年의 날짜를 맞추려고 하였기 때문에 三百六十五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素問骨空論』에 “水俞五十七穴者는 尻上五行에 行五요 伏菟上兩行에 行五요 左右各一行에 行五요 踝上各一行에 行六穴이라 髓空에 在腦後三分라니 在顛際銳骨之下하고 一은 在斷基下하고 一은 在項後中 復骨下하고 一은 在脊骨上空라니 在風腑上하고 脊骨下空은 在尻骨下空이라”라고 하였고, 『素問水熱穴論』에 “岐伯曰 腎俞五十七穴은 …… 尻上五行이요 行五

者는 …… 伏菟上各二行 行五者는 …… 踝上各一行 行六者는 …… 凡五十七穴者는 皆臟之陰絡이니 水之所客也니이다 …… 帝曰 夫子言 治熱病五十九俞라니 余論其意코 未能領別其處_{토니} 願聞其處하고 因聞其意하노라 岐伯曰 頭上五行의 行五者는 以越諸陽之熱逆也요 大杼 膺俞 缺盆 背俞 此八者는 以瀉胸中之熱也요 氣街 三里 巨虛 上下廉 此八者는 以瀉胃中之熱也요 雲門 髃骨 委中 髓空 此八者는 以瀉四肢之熱也요 五臟俞傍五 此十者는 以瀉五臟之熱也니 凡此五十九穴者는 皆熱之左右也니이다”라고 하여 水病을 治療하는 經穴 五十七個와 熱病을 治療하는 經穴 五十九個에 대하여 言及하고 있다.

이상의 文章들은 內經에서 言及하고 있는 經穴에 대한 것으로, 內經에서 이미 經絡系統의 發展이 있었고, 또한 經穴系統의 發展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1) 十二原穴¹³⁾

『靈樞九針十二原』에 “五臟有六腑하고 六腑有十二原라니 十二原은 出於四關이니이다 四關은 主治五臟하고 五臟有疾에 當取之十二原이니 十二原者는 五臟之所以稟三百六十五節氣味也니이다 五臟有疾에 應出十二原라니 十二原이 各有所出이니이다 明知其原하고 睹其應이면 而知五臟之害矣니이다 陽中之少陰은 肺也니 其原은 出於太淵라니 太淵二요 陽中之太陽은 心也니 其原은 出於大陵라니 大陵二요 陰中之少陽은 肝也니 其原은 出於太衝라니 太衝二요 陰中之至陰은 脾也니 其原은 出於太白라니 太白二요 陰中之太陰은 腎也니 其原은 出於太溪라니 太溪二이니이다 膏之原은 出於鳩尾라니 鳩尾一이요 肓之原은 出於臍腓라니 臍腓一이니이다 凡此十二原者는 主治五臟六腑之有疾者也니이다”라고 하여 五臟에는 六腑가 相對하고 있으며 이 藏

12) 丹波元簡, 素問識, 서울, 一中社, 1991. p. 313.

13)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教室,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88. p. 192.

府의 氣는 表裏를 이루어 十二個의 原穴이 있다. 十二原穴은 四肢의 腧穴에서 五藏의 疾病을 治療할 수 있으므로 五藏에 疾病이 發生할 때 十二原穴에서 取穴하게 된다. 十二原穴은 體表에 있으며 全身의 三百六十五輸穴이 五藏의 氣를 받아서 血氣를 循環시키는 代表的인 腧穴이다. 따라서 五藏에 疾病이 있을 때 그 反應이 體表의 十二原穴에 나타난다고 하여, 十二原穴에 대하여 說明하고 있다. 그러나 內經에서의 十二原穴은 現在 使用되고 있는 十二原穴과는 약간의 差異가 나타나니 이를 圖表化하면 아래와 같다.

內經에서의 十二原穴

肺	心	肝	脾	腎	膏	肓
太淵	大陵	太衝	太白	太谿	鳩尾	臑
2	2	2	2	2	1	1

現在の 十二原穴

肺	大腸	心	小腸	脾	胃
太淵	合谷	神門	腕骨	太白	衝陽
肝	膽	腎	膀胱	心包	三焦
太衝	丘墟	太谿	京骨	大陵	陽池

두 가지의 十二原穴을 비교하여 보면, 五臟에서는 太淵, 太白, 太衝, 太谿는 같고 心의 神門만이 다르다. 內經에서 心의 原穴을 大陵이라고 한 것은 心은 君主之官으로서 直接 作用하지 않고 心의 外候인 心包가 대신 作用하기 때문에 大陵을 原穴로 使用하였다. 그러나 六腑原穴의 追加로 인하여 現在에는 六臟六腑의 十二原穴로 사용하고 있다.

2) 五輸穴¹⁴⁾

『靈樞九針十二原』에서 “黃帝曰 願聞五臟六

腑所出之處^{하노이다} 岐伯曰 五臟五輸^니 五五二十五輸^로 六腑六輸^니 六六三十六輸^{이다} 經脈十二^로 絡脈十五^니 凡二十七氣以上下에 所出爲井^{이오} 所溜爲榮^{이오} 所注爲輸^오 所行爲經^{이오} 所入爲合^{이니} 二十七氣所行이 皆在五輸也^{니이다} 節之交는 三百六十五會^니 知其要者는 一言而終^{이이니와} 不知其要면 流散無窮^{이니이다} 所言節者는 神氣之所遊行出入也^오 非皮肉筋骨也^{니이다}” 라고 하였고, 『靈樞本輸』에서 “肺出於少商^{하니} 小商者는 手大指端內側也^오 爲井木^{이라} 溜於魚際^{하니} 魚際者는 手魚也^오 爲榮^{이라} 注於太淵^{하니} 太淵은 魚後一寸陷者中也^오 爲輸^라 行於經渠^{하니} 經渠는 寸口中也^오 動而不居^{라야} 爲經^{이라} 入於尺澤^{하니} 尺澤은 肘中之動脈也^오 爲合^{이라} 手太陰經也^라 …… 是謂五臟六腑之輸^니 五五二十五輸^로 六六三十六輸也^라 六腑皆出足之三陽^{하니} 上合於手者也^라”라고 하여 經脈에서의 脈氣가 始作되어 人體의 內部로 들어가는 過程에 대하여, 물의 흐름을 引用하여 言及하였으니 ‘所出爲井 所溜爲榮 所注爲輸 所行爲經 所入爲合’ 하는 順序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五臟에 各各 井榮輸經合의 五輸穴이 있으므로 二十五個의 腧穴이 있는 것이고, 六腑에는 各各 井榮輸經合의 五輸穴과 原穴이 추가되어 三十六個의 腧穴이 있다고 하였다. 五臟六腑의 五輸穴들은 모두 四肢末端에서 始作이 되어 肘膝關節에서 人體의 內部로 合入하는 形式을 가지고 있다.

五輸穴을 利用하여 治療하는 方法에 대하여서는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에서 “病在藏者는 取之井^{하고} 病變於色者는 取之榮^{하고} 病時間時甚者는 取之輸^{하고} 病變於音者는 取之經^{하고} 經滿而血者와 病在胃 及以飲食不節得病者는 取之於合^{이라}”라고 하여 疾病이 나타나는 부위에 따라서 五輸穴을 각기 달리 使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靈樞本輸』에서 “春取絡脈諸榮 大經分肉之間^{호대} 甚者深取之^{하고} 間者淺取之^라 夏取諸腧孫絡

14)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教室,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88. pp. 184~192.

肌肉皮膚之上이라 秋取諸合하고 餘如春法이라 冬取諸井諸腧之分호대 欲深而留之라 此는 四時之序며 氣之所處며 病之所舍며 藏之所宜라"라고 하였고, 『靈樞四時氣』에서 "春取經血脈分肉之間하고 甚者 深刺之하고 間者 淺刺之라 夏取盛經孫絡호대 取分間 絕皮膚라 秋取經腧하고 邪在府하면 取之合이라 冬取井榮호대 必深以留之라"라고 하여 四時따라 나타나는 疾病에 대하여 五輸穴을 應用하여 治療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下合穴

『靈樞邪氣臟腑病形』에서 "黃帝曰 榮腧與合이 各有名乎잇가 岐伯答曰 榮腧治外經하고 合治內府라 黃帝曰 治內府奈何오 岐伯曰 取之於合이니이다 黃帝曰 合各有名乎잇가 岐伯答曰 胃合於三里하고 大腸合入於巨虛上廉하고 小腸合入於巨虛下廉하고 三焦合入於委陽하고 膀胱合入於委中央하고 膽合入於陽陵泉이니이다 黃帝曰 取之奈何잇가 岐伯答曰 取之三里者는 低跗하고 取之巨虛者는 舉足하고 取之委陽者는 屈伸而索之하고 委中者는 屈而取之하고 陽陵泉者는 正豎膝予之齊하야 下至委陽之陽取之하고 取諸外經者는 揄申而從之니이다"라고 하여 五輸穴에서의 合穴과는 다른 概念으로 合穴을 言及하였으니, 이른바 '六腑下合穴'이라는 것으로 六腑에 나타나는 疾病을 治療하는 穴位를 말하는 것이다.

III. 結論

內經 經絡學說中 現在의 經絡學說과 類似한 部分을 除外한 十二經絡, 奇經八脈, 腧穴 등에 대하여 研究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經脈은 血氣를 運行시켜주고, 陰陽의 氣運을 疏通시키고, 筋骨에 營養分을 공급하고 關節

을 順調롭게 하여 주는 作用을 하는 것으로, 人體의 內外 表裏 上下를 모두 連結시켜 하나의 統一된 整體를 이루게 하는 役割을 하는 것이다.

2. 十二經脈을 利用한 診斷은 循經診斷의 方法을 使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治療는 鍼灸를 使用하여 經脈의 脈氣를 疏通시켜주어 아한다고 하였다.

3. 經脈의 標本理論은 本은 經脈의 根本으로 經氣가 始作되는 곳이며 下部에 位置하는 것이고, 標는 經脈의 末端으로 經氣가 收斂되는 곳이며 上部에 位置하는 것으로, 疾病의 診斷과 辨證論治에 있어서 重要한 作用을 한다.

4. 氣街는 人體의 頭胸腹脛에서 氣를 모아서 運行시키는 通路라는 意味와, 氣街動脈이라는 穴位의 意味와, 體表에 나타나는 一定한 部位라는 意味로 使用되었으나, 現在에 와서는 各部分에 分布된 經絡系統과 연결되어 經絡의 疏通을 원활하게 하는 役割을 하는 것으로 把握하고 있다.

5. 十五絡脈은 一般 絡脈과는 달리 그 自體의 循行路線을 가지고 있으며, 그 循行路線의 特徵은 求心性으로 되어 있다.

6. 十二經絡理論이 內經에서 거의 完成된 것과 는 달리, 奇經에 대한 理論은 內經에서는 조금씩 形成되어 가는 過程에 있는 것이고, 難經에 이르러 거의 完成된 理論이라고 할 수 있겠다.

7. 人體에는 三百六十五個의 腧穴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一年 三百六十五日과 일치시키려는 天人合一思想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一般的인 腧穴 以外에 十二原穴 五輸穴 六腑下合穴 등의 腧穴을 系統的으로 說明한 部分도 많이 나타난다.

參 考 文 獻

1.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湖南省,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2. 梁運通의, 黃帝內經類析, 서울, 一中社, 1986.
3. 王琦의, 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4. 王洪圖의,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7.
5. 李今庸, 新編黃帝內經綱目,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8. pp. 126~161.
6. 張景岳,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7.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教室, 鍼灸學(上), 서울, 集文堂, 1988.
8. 崔昇勳, 難經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1998.
9.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